

석사학위논문

제주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상
생활속의 일본어에 대한 고찰

지도교수 이 창 익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일어교육전공

김 정 수

2005년 8월

제주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상 생활속의 일본어에 대한 고찰

지도교수 이 창 익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5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일어교육전공

제출자 김 정 수

김정수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5년 7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제주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상생활 속의 일본어에 대한 고찰

김 정 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일어교육전공

지도교수 이창익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생각과 행동을 지배받게 되고 나아가서는 가치형성에 까지 영향을 받는다. 언어는 서로간의 의사소통은 물론이거니와 그 민족의 특성과 고유의 전통을 나타내기도 한다.

한국과 일본은 예부터 중국의 문자에 영향을 받아 생활 해왔고 문화양식과 생활양식이 유사한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과거 36년간의 식민정책으로 인하여 현재에도 일상적 측면에서 많은 양의 일본어가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는 문화체육부가 발행한 「일본어투 생활용어 순화집」에 나온 단어 중 우리주변에서 가장 잘 사용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단어 중 순일본어 60개, 일본식 외래어 37개, 합성어 2개 총 99개의 단어를 제주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을 비롯한 주부, 학생, 노인, 농업인, 전문직종사원등 총 451명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사용실태를 알아 보았다.

그 결과 성별에 따라 자주 사용하는 단어, 직업에 따라 자주 사용하는 단어, 나이가 들수록 많이 사용하는 단어, 10대들은 전혀 모르는 단어, 일본어는 알고는 있으나 사용하지 않고 있는 단어, 한국어는 알고 있어도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는 단어등 다양하게 한국어로 착각해서 사용하고 있는 어휘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처럼 우리말이 아닌데도 우리말처럼 사용하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마도 과거 일제시대때 일본어를 강제로 교육받았던 세대로부터 구전되어

※ 이 논문은 2005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오늘날까지 받아들여 우리말처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본대중문화는 개방되었고 물밀 듯이 밀려오는 우리말속에 사용하는 일본어가 많다는 것이 현실이며 국어순화라 하면 우리말속에 일본어의 사용을 먼저 떠올리는 실정이다. 여러 차례에 걸쳐 국어순화운동과 언론계의 역할로 우리말속에 사용되었던 일본어 잔재가 많이 사라졌다는 것을 10대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뚜렷이 인식할 수 있으며 사회가 변함에 따라 우리말속 일본어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우리말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언어 정체성의 첫단계이며 우리말의 발전에도 일조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의 기관만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홍보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목 차

국문초록	i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필요성	2
3. 연구의 범위	3
4. 선행연구	3
II. 조사분석 항목의 종류	4
1. 조사개요	4
2. 분석방법	6
3. 분석항목	7
III. 일본어 사용실태	8
1. 세대별 분류	8
1) 10대(고등학교)	8
2) 65세 이상(노인)	12
2. 직종별 분류	16
1) 공무원	16
2) 농업인	18

3) 주 부	21
4) 전문직 종사원(건축업)	23
3. 성별 분류	25
4. 일본어 사용빈도 비교	27
1) 10대와 노인의 차	27
2) 공무원과 농업인의 차	29
5. 일상 생활속의 일본어 사용에 관한 물음의 분석	31
1) 귀하의 일본어 실력	31
2)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본어 사용시 느낌	33
3) 우리말속에 일본어는 어느 분야에 제일 많은가	34
 IV. 대책방안	 35
 V. 결 론	 37
 참고문헌	 39
Abstract	40
부 록	42

표 목 차

[표 1] 남학생의 일본어 사용빈도	8
[표 2] 여학생의 일본어 사용빈도	10
[표 3] 남자노인의 일본어 사용빈도	12
[표 4] 여자노인의 일본어 사용빈도	14
[표 5] 남자공무원의 일본어 사용빈도	16
[표 6] 여자공무원의 일본어 사용빈도	17
[표 7] 남자농업인의 일본어 사용빈도	18
[표 8] 여자농업인의 일본어 사용빈도	20
[표 9] 주부의 일본어 사용빈도	21
[표10] 전문직종사원의 일본어 사용빈도	23
[표11] 남녀의 일본어 사용빈도	25
[표12] 일본어 사용차이 비교	27
[표13] 일본어 사용차이 비교	29

그림 목차

[그림 1] 귀하의 일본어 실력은	31
[그림 2]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본어 사용시 느낌	33
[그림 3] 일본어는 어느 분야에 제일 많은가	34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언어란 한 세대가 지난다고 해서 쉽게 잊혀지는 것이 아니고 언어적 감수성이 빈번한 나이에 국어처럼 본인 입맛에 맞게 배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 밖으로 튀어나와 사용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근대화 시기에 서양문물이 들어오면서 기술이나 전문직 용어가 일본어나 일본식 한자어, 일본식 외래어가 많이 들어왔다. 특히 건축이나 인쇄, 재봉 등 기술용어가 대부분이 일본어로 되어 있어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분야가 낙후된 상태에서 그들의 용어를 그대로 받아야 하였기에 별의식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언어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자연스럽게 전수해 가는 것으로, 일본어 또한 아직도 각 분야에 걸쳐 그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일본어 잔재는 기성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대의 문제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그 세대가 쉽게 흡수할 수 있는 일본 문화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 전망된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본어는 어느 분야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을 비롯한 학생, 주부, 전문직 종사원, 노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았다.

문화체육부가 발행한 『일본어투 생활용어 순화집』에 나온 단어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가장 잘 사용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단어 중 순일본어 60개, 일본식 외래어 37개, 합성어 2개, 총 99개의 단어를 선택¹⁾하였다.

1) 1995년도 총 702단어, 2002년도 총 2087단어 중 「일본어투 생활용어 순화집」에서 연구자의 생활주변을 기준으로 단어를 선택, 일반인 10명에게 검증한 후 선택한 단어이다.

사회 각층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분석·검증한 후 일본어 사용실태와 빈도를 알아 보았다. 일제 식민지 기간에 우리 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하여 일본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해야만 했던 경험은 학습에 의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고, 그 다음 세대들도 자연스럽게 사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은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고 있는 일본어를 배운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 우리말로 착각하여 쓰게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일상생활 속의 상당수가 우리말과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계량화 시키고 이를 토대로 분석·비교한 후 대책을 강구하려 한다.

2. 연구의 필요성

주유소등에서 ‘만땅(滿タン) 채워주세요. 입빠이(잇파이, いっぱい)요’ 라고 흔히 사용한다. 일본어가 우리사회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려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이 말이 일본어인지를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 중 일본어는 얼마나 차지하고 있을까? 우리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본어 표현이 순수 일본어인가? 원래의 의미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의미가 동일한가? 설문조사를 통해 제주도내에서 사용하는 단어, 세대별 조사를 통해 사라지고 있는 단어, 잘 사용하고 있는 단어등을 조사한 후,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본어를 우리말로 대치 시킬수 있는 말로 바로잡아 올바른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순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연구의 범위

일제 36년간의 식민정책으로 인하여 현재도 일상적인 회화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사용하는 고유 일본어와 한자어가 많이 유입되었고, 현대에는 빈번한 서양문화와의 접촉으로 여러 나라의 말이 각각 전문분야에서 널리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순일본어와 일본식 외래어를 가지고 제주도민의 일상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일본어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일반시민²⁾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일상 생활속의 일본어 사용에 관하여 다양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실태 분석을 하는데 범위를 두었다.

4. 선행 연구

각 분야별³⁾로 찾아본다면 건축분야를 비롯하여 음식, 수산, 의복, 인쇄, 미용·이발, 영화, 당구·놀이, 자동차나 교통, 그밖의 분야에 남아 있다.

「순화대상 일본어·일본식 어휘의 발생 배경」(김용성, 1995)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으며 「한국어로 인식하고 있는 어휘와 일본어로 인식하고 있는 높은 어휘」(라주영, 2000)를 비롯하여 「우리말 속의 일본말」(박숙희, 1996)이 있는데 그것이 「고유어」(이재원, 1997)인지 「외래어」(김길자, 1991)인지, 「원형(원음)대로 쓰이는 일본어」(윤의순, 1995), 「일본어 유입의 역사적 배경과 그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강대석, 1996), 「우리말 속에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에 대한 고찰」(2001, 이영숙)에 관한 연구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제주도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본어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어 「제주도 방언의 일본어어사 차용에 대하여」(김완진, 1957)에서는 전사⁴⁾에 대한 주의점이 상세히 기록되고 있다.

2) 분석인원수(451명) : 공무원(57명), 학생(100명), 주부(71명), 전문직종사원(89명), 노인(75명), 농업인(59명)

3) 이경애(1990), 『우리말 속에서 사용되는 일본어에 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pp.12~39.
강대석(1996), 『일본어 유입의 역사적 배경과 그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pp.16~43, 부록 별표1.

4) 한자로는 轉寫라고 쓰며, 영어를 우리말로 또는 일본어로 사용할 때의 주의점.

II. 조사 분석 항목의 종류

1. 조사개요

이 조사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이 일본어인지 국어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그 사용실태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확인 하였다.

- 조사 대상자 :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을 비롯한 주부, 학생, 노인, 농업인, 전문직종사원.
- 조사 방법 : 서면조사 및 부분적인 면접조사.
- 조사 기간 : 2003년 11월 ~ 2004년 1월.
- 조사 인원 : 451명.

설문지 항목⁵⁾은 문화체육부가 발행한 『일본어투 생활 용어 순화집』에 나온 단어 가운데 일상 생활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휘, 즉 우리 주변에서 가장 잘 사용하는 단어 중 순일본어 60개, 일본식 외래어 37개, 합성어 2개, 총99개의 어휘를 발췌 하였고 그 어휘는 다음과 같다.

(순일본어)

가라(から), 가이단(가이당, かいだん), 가쿠목(가꾸목, かくぎい), 간즈메(간스메, かんづめ), 고바이(こうばい), 곤로(こんろ), 구가타(구가다, きゅうがた), 구루마(くるま), 구사리(쿠사리, くさり), 구세(쿠세, くせ), 기리카에(기리까이, きりかえ), 기즈(기스, きず), 낱깡(きんかん), 네지(ねじ), 노가다(どかた), 다마(たま),

5) 부록 별표2.

다마네기(たまねぎ), 다시(だし), 다이(だい), 다쿠안(다꾸앙, たくあん), 단도리(だんどり), 단스(たんす), 땡깡(てんかん)⁶⁾, 스루메(するめ), 스시(すし), 모찌(もち, 모치), 모도시(もどし), 몸뻬(もんぺ), 무뎃뽕(むてっぼう), 미깡(みかん), 분짜이(분짜이, ぶんばい), 사라(さら), 사시미(さしみ), 사쿠라(사꾸라, さくら), 모리소바(もりそば), 시마이(しまい), 시아기(시아게, しあげ), 쓰리(すり), 쓰메키리(쓰메끼리, つめきり), 아나고(あなご), 아타라시(아다라시, あたらしい), 야스리(やすり), (야끼)만두, (야키)まんじゅう), 엔코(엔꼬, えんこ)⁷⁾, 오뎡(おでん), 오야지(おやじ), 와리바시(わりばし), 와사비(わさび), 요지(ようじ), 우동(うどん), 우와기(うわぎ), 유도리(유토리, ゆとり), 입짜이(잇짜이, いっぱい), 자바라(じゃばら), 지라시(찌라시, ちらし), 하시(はし), 하꼬(하코, はこ), 하바(はば), 후로쿠(후로꾸, ふろく), 히야시(시야시, ひやし)

(일본식 외래어)

외국어가 들어와서 외래어화 될 때에는 물론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나라의 어구조에 맞게 변형·정착하게 되는데⁸⁾ 일본어를 통해 차용한 서구 외래어들은 발음이 일본적이고 주로 광복 이전부터 쓰여온 어휘이다.⁹⁾

가라스(ガラス), 가타로구(가다로구, カタログ), 곱뿌(고뿌, コップ), 파자마(パジャマ), 덴푸라(뎀뿌라, テンプラ), 도란스(ドランス), 따불(ダブル), 리야카(니야까, リヤカー), 마후라(마플러, マフラー), 미싱(ミシン), 바란스(バランス), 바케스(바께스, バケツ), 밧테리(밧떼리, バッテリー), 백미라(백미러, バックミラー), 보단(보당, ボタン), 보루박스(보러- box), 빠꾸오라이(バックオーライ), 뺨쓰(パ

6) 일본에서는 전문의학 용어로 간질병이나 지랄병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투정을 심하게 부릴 때 ‘생떼’를 가리킨다.
 7) 일본에서는 자동차등이 고장이나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뜻이지만 한국에서는 ‘기름이 떨어졌다, 기름이 바닥났다’로 사용하고 있다.
 8) 조영성(1990), 『한국어속의 일본제 외래어에 관한 연구』,경상대, 석사논문, p.44.
 9) 문화체육부(1995, 2000), 『일본어투 생활용어 순화집』, 계문사, p.5.

ンツ), 빵꾸(빵쿠, パンク), 뺨찌(펜치), 뺨끼(펜키), 뽐뿌(폰뿌), 사라다(サラダ), 쇼바(アブショバ), 스라브(스라브), 스타ンプ(스탐뿌, スタンプ), 쟈타(센터), 쓰레빠(스리빠), 쓰봉(즈بون), 아까짚끼(아카친), 엑기스(에키스, エキス), 오바(오바코트), 잣꾸(자꾸, チャック), 조로(조우로), 화이버(화이버), 후라이(フライ), 추리닝(트레이닝·웨어)

(합성어)

가라오케(カラオケ), 만땅(滿タン)

제시된 단어 발음이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한국어 표기는 발췌한 자료의 표기법을 따랐다. 또한 정확한 형태를 알아보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10대 (고등학생)부터 주부, 공무원, 농업인, 전문직 종사원, 65세 이상(노인)까지 다양한 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분석 방법

451매의 회수된 설문지를 일일이 검토한 결과 통계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무효 답변¹⁰⁾을 한 설문지는 135매였다. 이를 뺀 나머지 316명(남자172명, 여자144명)의 설문지를 백분율로 산출하고 컴퓨터에 입력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10) 답변에 전혀 체크가 안된 것과 답변 모두 체크가 된 것등

3. 분석항목

유효 답변(316명)중 남성 172명, 여성 144명

- 1) 세대별 분류 : 10대(남 47명, 여 50명), 65세이상(남 15명, 여 19명)
- 2) 전문직종별 분류 : 공무원(남 25명, 여 19명), 농업인(남 25명, 여 9명),
주부(47명), 전문직종사원(남 60명)
- 3) 성별 분류 : 남성 172명, 여성 144명
- 4) 일본어 사용빈도 비교 : 10대와 65세이상, 공무원과 농업인
- 5) 일상 생활속의 일본어 사용에 관한 분석

Ⅲ. 일본어 사용 실태

1. 세대별 분류

1) 10대(고등학교)

이 조사에서는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한 학생들은 1년 동안 일본어 수업을 받았던 학생들이다.

전체 100명 가운데 남학생 48명, 여학생 52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남학생 1명과 여학생 2명만이 무효 답변을 하여 9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 남학생

[표1] 남학생의 일본어 사용빈도(90%이상)

순위	일본어	명	%
1	노가다, 오뎅	46	97.8
3	쓰레빠	45	95.7
4	와사비	43	91.4

[표1] 처럼 1위는 오뎅(おでん), 노가다(どかた)이며 노가다는 주로 공사판의 노동자, 잡역부를 가리킨다. 원발음은 ‘도가다(どかた)’ 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노가다로 쓰고 있다. 남학생은 거의 다 우리말처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여학생들도 92.0%의 높은 사용을 나타내고 있다.

3위는 쓰레빠(スリッパ)로 ‘실내화’ 보다도 자주 쓰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95.7%의 사용율을 보였다. slipper의 일본식 발음은 스텍파이지만 우리식

으로 ‘쓰레빠’ 로 강하게 발음하게 되었다.

4위 와사비(わさび)를 비롯하여 만땅(満タン), 밧테리(밧떼리, バッテリー), 뽀찌(ペンチ), 백미러(バックミラー), 추리닝(トレーニング・ウェア), 몸빼(もんぺ), 미깡(みかん), 우동(うどん)이 높은 사용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와는 반대로 사용빈도가 낮은 단어로는 가라(から), 가이단(가이당, かいだん), 구세(쿠세, くせ), 스루메(するめ), 하바(はば), 네지(ねじ)등이었다.

(2) 여학생

[표2] 여학생의 일본어 사용빈도(90%이상)

순위	일본어	명	%
1	추리닝, 우동	49	98.0
3	오뎅	48	96.0
4	몸빼	47	94.0
5	노가다, 백미라	46	92.0
6	밧테리	45	90.0

1위 우동(うどん)과 추리닝(トレーニング・ウェア)으로 우동(うどん)은 순우리말에 ‘가락국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대에서도가락국수보다 우동(うどん)을 더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멸치국수’, ‘고기국수’, ‘비빔국수’, ‘냉국수’, ‘콩국수’ 처럼 고유명사화 된 경우는 ‘우동’이 아닌 ‘국수’로 표현되는 것으로 보아 혼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리닝(トレーニング・ウェア)은 일본식 외래어로서 영어의 training wear에서 온 말인데 트레이닝을 일본어로 발음하는 과정에서 ‘추리닝(トレーニング)’으로 되었으며¹¹⁾ 한국에서는 웨어(wear)를 생략하여 사용하고 있다.

3위는 오뎅(おでん)으로 우리말인 ‘어묵’보다 오뎅(おでん)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위는 몸빼(もんぺ)¹²⁾로 우리말에 ‘일바지’나 ‘왜바지’가 있는데 94.0%로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위는 노가다(どかた), 백미라(백미러, バックミラー)이었다.

11) 박숙희(1996), 『반드시 바꿔 써야 할 우리말 속 일본말』, 은성문화사, p.297.

12) 아주머니들이 일을 할 때나 간편하게 입는 옷으로서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의 들어온 옷.

이와같이 10대의 일본어 사용은 남녀의 사용빈도에 볼 때 차이를 알 수가 있다.

사용빈도가 낮은 단어로는 가라(から), 가이단(가이당, かいだん), 가쿠목(가꾸목, かくぎい), 구세(쿠세, くせ), 스루메(스루메, するめ), 간즈메(간즈메, カンづめ), 기리카에(기리카이, きりかえ), 고바이(こうばい) 등이었다.

일본어 사용 빈도가 90% 이상이라면 일본어라기보다 우리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오뎅(おでん)과 같은 단어는 우리말의 ‘어묵’ 보다 발음하기 쉬워 계속 존속되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음식점이나 마트등에서 ‘어묵’ 등으로 표기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어묵’의 사용비율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노가다(どかた), 오뎅(おでん)은 남녀 모두 90%이상 사용하고 있었으며 10대 남녀 어휘 차도 [표1] [표2] 처럼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다.

10대의 일본어 사용은 직·간접적으로 주위 환경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사용 빈도가 낮은 단어들도 많은 것으로 보아 국어 순화 운동¹³⁾에 의하여 일본어 대신 우리말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13) 강신항(1991), 『현대 국어어휘의 양상』, 태학사, pp.32~33, 부록 별표3.

2) 65세 이상(노인)

제주시 이도2동에 소재를 둔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노인 대학)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75명 중 41명이 무효 답이어서 나머지 34명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그 중 남자노인(23명)의 유효답변은 15명인 65.2%, 여자노인(52명)은 19명인 36.5%이었다. 나이가 들어 이해력이 상당히 저하된 탓으로 문제를 1번부터 99번까지 일일이 읽어 주는 형식으로 실시하였다.

(1) 남자노인

[표3] 남자노인의 일본어 사용빈도(90%이상)

순위	일본어	명	%
1	곤로, 구가다, 기즈, 깡깡, 노가다, 다마네기, 다시, 단스, 텀뿌라, 리야카, 마후라, 만땅, 몸빼, 미깡, 미싱, 바케스, 백미라, 빠꾸오라이, 뽀스, 빵꾸, 뽀찌, 뽀뿌, 사시미, 스라브, 시마이, 시아기, 쓰메끼리, 쓰봉, 아까징끼, 아나고, 엔꼬, 오텡, 오바, 오야지, 요지, 우둥, 잣쿠, 하시, 하꼬, 하바, 화이바, 후라이, 히야시, 추리닝, 단도리, 쨌타, 와리바시, 입빠이, 파자마, 사라, 다이, 간스메, 고바이, 무텃뽀,	15	100
55	구루마, 쿠사리, 다마, 다쿠안, 사라다, 사쿠라, 쓰레빠, 조로, 아타라시, 구세, 우와기, 밧테리, 엑기스, 곱뿌, 네지, 가쿠목, 따블, 뽀끼,	14	93.3

이 조사 결과, 전술한 10대 학생들에 비하여 일본어 사용비율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표3] 에서처럼 곤로(こんろ) 등 54어가 100%의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구루마(くるま)를 비롯한 구사리(쿠사리, くさり), 다마(たま), 다쿠안(다꾸앙, たくあん)등 그 뒤를 잇고 있다.

80%이상 사용하는 단어는 84어나 되어 일상 회화 속에서 남자노인들이 일본어 사용비율은 아주 높음을 알 수 있다.

(2) 여자 노인

[표4] 여자노인의 일본어 사용빈도(90%이상)

순위	일본어	명	%
1	곤로, 구가다, 기즈, 낱깡, 노가다, 다마네기, 다시, 단스, 뎀뿌라, 리야카, 마후라, 만땅, 몸빼, 미깡, 미싱, 바케스, 백미라, 빠꾸오라이, 뽀스, 빵꾸, 뽀찌, 뽀뿌, 사시미, 스라브, 시마이, 시아기, 쓰메끼리, 쓰봉, 아까징끼, 아나고, 엔꼬, 오뎡, 오바, 오야지, 요지, 우동, 잣쿠, 하시, 하꼬, 하바, 화이바, 후라이, 히야시, 추리닝,	19	100
45	구루마, 쿠사리, 다마, 다쿠안, 사라다, 사쿠라, 쓰레빠, 조로, 단도리 쉐타, 와리바시	18	94.7

여자 노인도 다른 세대에 비해 많은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자 노인과 마찬가지로 곤로(こんろ)를 비롯한 44어가 100%, 구루마(くるま)를 포함한 11어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남자노인은 80% 이상 사용하는 단어가 84어인데 비해 여자노인은 63어로서 남자노인보다는 적게 사용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노인들은 제시한 어휘가 일본어인지 우리말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노인이 많았다. 노인 중에 남자노인이 일본어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그들이 여자들보다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였기에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를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우동(밀국수)’, ‘스시(초밥)’, ‘벤또(도시락)’, ‘와리바시(나무젓가락)’, ‘쓰메끼리(손톱깎이)’, ‘이찌(하나)’, ‘니(둘)’, ‘산(셋).....’, 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그들의 2세, 3세대(오늘의 30대이하)도 그 영향을 받아 알게 모르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⁴⁾

14) 이재원(1997), 『국어순화의 고찰』, 교양교육연구소논문집, p.87.

노인들이 한국어를 알고 있어도 일본어로 사용한다는 것은 일제강점시대에 유소년 시대를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그 말을 익힌 것으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휘를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설사 교육을 받았다고 하여도 주위의 환경, 즉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정착한 사람들이나 일본에 거주하는 친인척이 많아 그들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고착되어버린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직종별 분류

1) 공무원

북제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약간의 일본어 학습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57명 중 남자 공무원(32명)과 여자 공무원(25명) 중 각각 25명인 78.1%, 19명인 76.0%가 유효답변을 하였다.

(1) 남자 공무원

[표5] 남자 공무원의 일본어 사용빈도(90%이상)

순위	일본어	명	%
1	노가다, 리야카, 마후라, 몸빼, 미짱, 밧테리, 펜찌, 사라다, 사시미, 엑기스, 요지, 와사비	25	100
13	깡깡, 만땅, 무텃뽀, 미싱, 바케스, 백미라, 아나고, 엔꼬, 오뎡, 우동, 화이바, 추리닝	24	96.0
25	기즈, 다마, 다이, 단도리, 따불, 땡깡, 쓰레바, 아까징끼	23	92.0

남자 공무원의 100%를 차지하는 단어는 노가다(どかた)등 12단어가 모두 우리 말처럼 사용하는 단어들이다. 그 뒤를 이은 단어는 깡깡(きんかん)등 12어였다. 특히 만땅(滿タン)은 우리말로 알고 사용했다는 사람도 두 세명 있었다. 만땅은 ‘滿’(가득할 만)에 저장통을 가리키는 ‘tank’가 합성된 일본식 튀기말로서 연료통을 가득 채운다는 뜻이다.¹⁵⁾

기즈(기스, きず)등 8어가 92%, 따불(ダブル)이나 땡깡(てんかん)은 여성어보다도 남성어로 강하게 느껴지는 단어이기도하다. 또 10대에서는 전혀 모르는 아까징끼(あかチン)가 남자 공무원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15) 박숙희(1996), 『반드시 바꿔 써야 할 우리말 속 일본말』, 은성문화사, p.272.

(2) 여자 공무원

[표6] 여자 공무원의 일본어 사용빈도(90%이상)

순위	일본어	명	%
1	노가다, 리야카, 미깡, 밧테리, 펜찌, 사시미, 액기스, 와사비, 액기스, 바케스, 백미라, 오뎅, 우동, 추리닝, 구루마, 도란스, 사쿠라, 다시	19	100
19	마후라, 몸빼, 사라다, 쎄타, 깡깡, 엔꼬, 기즈, 단도리, 입빠이, 오야지, 히야시	18	94.7

여자 공무원도 남자 공무원처럼 사용하는 단어의 차이는 거의 없으나 1위에 다시(だし), 도란스(ドランス), 사쿠라(사꾸라, さくら), 우동(うどん), 추리닝(トレーニング・ウェア), 바케스(바께스, バケツ)등이 추가 되었다.

다시(だし)는 우리나라에서 멸치 등을 끓여 우린 ‘국물’ 을 ‘다시’ 라고 하는데 여성들은 일상에서 계속 구전되어 온 이 용어가 우리말처럼 통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뒤를 이어 마후라(マフラー), 몸빼(もんぺ)등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오야지(おやし)는 남성어 같이 느껴지지만 여자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의외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2) 농업인

매년 1월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 현장인 북제주군 한림읍 대림리 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59명 중 남성 42명, 여성 17명이었고 각각 25명인 59.5%, 9명인 52.9%의 유효답변을 하였다.

(1) 남자 농업인

[표7] 남자 농업인의 일본어 사용빈도(90%이상)

순위	일본어	명	%
1	곤로, 구루마, 낱깡, 노가다, 다시, 다이, 단도리, 도란스, 리야카, 마후라, 몸빼, 미깡, 바케스, 밧테리, 백미라, 뽕스, 빵쿠, 뽕찌, 사라다, 사시미, 사쿠라, 시마이, 시야기, 썰타, 아까징끼, 액기스, 엔꼬, 오바, 와사비, 우동, 유도리, 만땅, 입빠이, 추리닝, 기즈, 땡깡, 우와기, 미싱, 사라, 오야지, 바란스, 무뎃뽕, 빠꾸오라이, 분빠이, 가꾸목	25	100
46	뽕뽕, 쓰메끼리, 야스리, 잣쿠, 가라오케, 조로, 하바, 다마, 히야시, 쓰레빠, 따불, 구가다, 스라브	24	96.0

남자 농업인의 일본어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단어는 무뎃뽕(むてっぼう)등 모두 45어이다. 무뎃뽕(むてっぼう)는 앞뒤 생각 없이 무턱대고 하는 모양, 분별 없음, 경솔함등을 뜻한다.¹⁶⁾

그 뒤를 뽕뽕등 13어가 잇고 있다. 가라오케(カラオケ)나 조로(ジョウロ)는 96%로 다른 분야에서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어려웠던 시

16) 이수열(1999),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말 바로 쓰기』, (주)현암사, p.373.

절에 비해 요즘은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누구나 노래방이나 가라오케(カラオケ)에서 스트레스를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조로(ジョウロ)는 농업용 도구이므로 당연히 농업인이 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용빈도가 가장 낮은 어는 가라(から), 스루메(するめ), 보단(보당, ぼたん), 모리소바(もりそば)인데 단 한사람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2) 여자 농업인

[표8] 여자 농업인의 일본어 사용빈도(90%이상)

순위	일본어	명	%
1	곤로, 구루마, 깡깡, 노가다, 다시, 다이, 단도리, 도란스, 리야카, 마후라, 몸빼, 미깡, 바케스, 밧테리, 백미라, 뽕스, 빵쿠, 뽕찌, 사라다, 사시미, 사쿠라, 시마이, 시아기, 센타, 아까징끼, 액기스, 엔꼬, 오바, 와사비, 우동, 유도리, 입빠이, 추리닝, 뽕뿌, 쓰메끼리, 잣쿠, 조로, 히야시, 요지	9	100

곤로(こんろ), 구루마(くるま), 깡깡(きんかん), 노가다(どかた), 다시(だし)등 39어가 100%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깡깡(きんかん)은 작은 귤같이 생긴 과일로 신맛과 단맛이 나고 향기가 좋은 과일이며 일본 한자로 金柑, 우리나라에서는 금귤, 동귤이라고 부른다.¹⁷⁾ 그리고 우리말인 ‘외투’가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농업인들은 ‘외투’보다 ‘오바(オバコート)’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업인이라고 해서 일본어를 많이 쓰는 것은 아니었다. 가라(から)를 비롯한 보단(보당, ぼだん), 스루메(するめ), 모리소바(もりそば), 간즈메(간즈메, カンづめ)등은 농업인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일본어이다.

17) 박숙희(1996), 『반드시 바꿔 써야 할 우리말 속 일본말』, 은성문화사, p.43.

3) 주부

북제주군 생활개선회 2003년 연말총회 때 설문조사 했으며 회원은 결혼한 가정주부로서 30대부터 50대지만 40대가 주를 이루었다. 전체 71명 중 유효답변이 47명인 66.1%였다.

[표9] 주부의 일본어 사용빈도(90%이상)

순위	일본어	명	%
1	깡깡, 노가다, 리야카, 몸빼, 미싱, 밧테리, 백미라, 엔꼬, 와사비, 우동, 추리닝	47	100
12	단도리, 도란스, 바께스, 빵쿠, 뺨치, 액기스, 오텡, 입빠이,	46	97.9
20	기즈, 다시, 마후라, 만땅, 미깡, 사시미	45	95.7
26	바란스, 아까징끼, 아나고, 유도리, 잣쿠, 히야시	44	93.6
32	구루마, 따불, 사라다, 오바, 조로	43	91.5

주부들은 깡깡(きんかん)등 11어가 100%로 우리말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몸빼(もんぺ)나 미싱(ミシン)은 다른 분야 보다 주부들의 생활에 근접하는 단어이기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 뒤를 단도리(だんどり)등 8어가 97.9%로, 우리말에 ‘준비, 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도리(だんどり)’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기즈(기스, きず)등 6어가 95.7%, 바란스(バランス)등 6어가 93.6%, 구루마(くるま)등 5어가 91.5%를 사용하고 있어 90%이상 사용하는 어는 모두 36어였다. 전혀 사용하지 않는 단어에는 가라(から), 가이단(가이당, かいだん), 간즈메(간스메, カンづめ), 스루메(するめ)등이 있었다.

특수한 직종을 제외하고는 일본어에 대한 일상적인 단어는 크게 다르지가 않았다. 주부라고 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몸빼(もんぺ)라든가 기즈(기스, きず), 다시(だし), 마후라(マフラー), 바케스(바께스, バケツ)등은 주부들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라 사용빈도가 높은 것은 당연하지만 주부 뿐만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알 수 있었다.

4) 전문직 종사원(건축업)

북제주군 한림읍에서 신축하고 있는 제2차 감귤복합가공공장 건설현장에서 설문조사 한 결과 전체 89명이고 모두 남성이었으며 이 가운데 유효답변이 60명인 67.4%이었다.

[표10] 전문직 종사원의 일본어 사용빈도(90%이상)

순위	일본어	명	%
1	만땅, 밧테리, 백미라, 벤찌, 쇼바, 쟈타, 쓰레빠, 엑기스, 오텐, 히야시, 추리닝	60	100
12	노가다, 리야카, 마후라, 몸빠, 바케스, 빵쿠, 오야지, 와사비	59	98.3
20	곤로, 다이, 미깡, 미싱, 바란스, 사시미, 스타브, 시마이, 우동, 아까징끼	58	96.6
30	입빠이, 기즈, 구루마, 가쿠목, 뽀뽀, 화이바	57	95.0
36	뽕깡, 가타로구, 야스리, 자바라, 따불, 유도리	56	93.3
42	구가타, 다쿠안, 단도리, 네지, 깡깡, 도란스, 빠꾸오라이, 아타라시이, 텐푸라	55	91.6
51	우와기, 스시, 모도시, 쓰메끼리	54	90.0

전문직 종사원은 만땅(滿タン)을 비롯한 밧테리(밧떼리, バッテリー), 백미러(バックミラー), 뽀찌(ペンチ), 쇼바(アブショバ), 쟈타(センター), 쓰레빠(スリッパ), 엑기스(엑키스, エキス), 오텐(おでん), 히야시(시야시, ひやし), 추리닝(トレーニング・ウェア)이 100%로 순일본어보다 일본식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가다(どかた), 리야카(니야까, リヤカー), 마후라(マフラー), 몸빼(もんぺ), 바케스(바께스, バケツ), 빵꾸(パンク), 오야지(おやじ), 와사비(わさび)가 98.3% 사용하고 있다.

와사비(わさび)는 고추냉이 혹은 그 뿌리를 갈아만든 향신료이며 우리말인 ‘고추냉이’라는 말을 몰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뒤를 곤로(こんろ)등의 10어가 96.6%, 입빠이(잇파이, いっぱい)등의 6어가 95%, 땡깡(てんかん)등의 6어가 93.3%, 구가타(구가다, きゅうがた)등의 91.6%였다. 사용빈도가 낮은 단어로는 가라(から), 스루메(するめ), 모리소바(もりそば), 간즈메(간스메, カンづめ)였다.

건축업에서의 일본어 사용은 밧테리(밧떼리, バッテリー), 뺨찌(ペンチ), 쇼바(アブショバ), 바란스(バランス), 시마이(しまい), 가쿠목(가꾸목, かくぎい), 야스리(やすり), 모도시(もどし), 화이바(ファイバー)등 다른 분야와는 달리 전문직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임을 알 수 있다.

직업에 따라 일본어 단어 사용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분야별로 볼 때 건축업이 일본어 사용이 가장 많고 지금 현재도 건축용어는 우리말보다 일본어를 사용해야 통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현대의 건축업이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하루아침에 바로잡아 우리말로 고쳐서 사용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다소 무리라고 보여진다.

3. 성별분류

남성 전체 234명 중 172명인 73.5%, 여성 전체 217명 중 143명인 65.8%가 유효답변이었다. 이 중 노인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설문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였고 10대와 다른 분야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11] 남녀의 일본어 사용빈도(70%이상)

순위	남성	명	%	순위	여성	명	%
1	미깡	152	88.3	1	몸빼	112	78.3
2	입빠이	137	79.6	2	만땅	110	76.9
3	만땅	134	77.9	3	미깡, 입빠이	106	74.1
4	따불	133	77.3	5	요지	103	72.0
5	다마, 요지	128	74.4	6	기즈, 와사비	101	70.6
7	쓰메끼리	127	73.8				
8	엑기스	124	72.0				
9	땡깡	122	70.9				
10	화이바	121	70.3				

(1) 남성

유효 답변 중 88.3%가 미깡(みかん)이며 남성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로 나타났다. 미깡(みかん)이라는 단어는 1960년 초기에 일본에서 밀감나무가 도입되어 서귀포를 중심으로 한 제주도 일부분만이 한국 유일한 감귤 생산지로 알려져 왔으나 지금은 해발 200m 이하의 제주도 일원과 남부지방의 통영, 고흥, 완도, 거제, 남해등에서도 밀감나무가 재배되고 있어 제주도에서 재배하기 시작과 더불어 미깡(みかん)이라는 단어가 시작되었고 다른 지방에서도 사용되고 있다고 본다.

입빠이(잇파이, いっぱい) 79.6%, 만땅(滿タン) 77.9%, 따불(ダブル) 77.3%, 다마(たま), 요지(ようじ), 쓰메키리(쓰메끼리, つめきり), 엑기스(에키스, エキス), 땡깡(てんかん), 화이버(ファイバー)순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땡깡(てんかん)은 한자로 ‘癲癇’ 이라고 일본에서는 전문의학용어로 간질병이나 지랄병을 나타내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일상생활에서 생떼를 쓰고 행패를 부린다거나 아이들이 투정을 심하게 부릴 때 사용하고 있어¹⁸⁾의미가 약간 전용되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여성

전체 여성 중 1위인 몸빼(もんぺ) 78.3%, 만땅(滿タン) 76.9%을 비롯한 미깡(みかん), 입빠이(잇파이, いっぱい) 74.1%로 여성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 공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요지(ようじ) 72.0%, 기즈(기스, きず), 와사비(わさび)가 70.6%, 엑기스(에키스, エキス), 다마네기(たまねぎ), 쓰메키리(쓰메끼리, つめきり)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임을 알 수 있다.

[표11] 처럼 남녀의 차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남성어는 따불(ダブル), 다마(たま), 땡깡(てんかん), 화이버(ファイバー)이고 여성어는 몸빼(もんぺ), 기즈(기스, きず), 와사비(わさび)이다. 하나의 특징으로 들수 있는 것은 여성은 주로 집안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많았고 남성은 밖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11] 처럼 남녀 따로 사용하는 단어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제주도내에서 보통 우리말처럼 사용되는 언어들이다. 이러한 단어들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무리이며 당분간은 다음 세대를 거치면서 계속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츰 국어순화가 진전되어 많은 단어가 우리말로 바르게 고쳐질것으로 예상된다.

18) 박숙희(1996), 『반드시 바꿔 써야 할 우리말 속 일본말』, 은성문화사, p.64.

4. 일본어 사용빈도 비교

우리말속에 사용하고 있는 일본어 어휘를 사용빈도 비교를 통해 10대와 65세 이상의 노인의 차에서 비교하여 어떤 어휘들이 세대간 차가 있는지를 알아 보겠다. 또한 가급적 우리말을 정확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공무원과 주위의 영향에 의해 무심코 사용하는 농업인과의 언어의 사용 차를 비교하려 한다.

1) 10대와 노인의 차

[표12] 일본어 사용차이 비교(90%이상)

순위	일본어	10대		65세이상	
		명	%	명	%
1	시아기, 하바	1	1.0	34	100
3	하꼬	3	3.1	34	100
4	아타라시이	1	1.0	33	97.1
5	쓰봉, 구가다	4	4.1	34	100
7	쿠세	0	0.0	32	94.1
8	조로	3	3.1	33	97.1
9	스라브,시마이	6	6.2	34	100
12	단스	8	8.2	34	100
13	우와기	3	3.1	32	94.1
14	뽀뿌	9	9.3	34	100
15	기리까이	1	1.0	31	91.2

일본어 사용빈도는 [표12] 처럼 노인들은 사용율의 차이는 있지만 부분적으로나마 모든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 10대와 많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노인들 사이에서 시아기(시아게, しあげ), 하바(はば), 하꼬(하코, はこ), 쓰봉(ズボン), 구가타(구가다, きゅうがた), 스라브(スラブ), 시마이(しまい), 아까징끼(あかチン)는 우리말처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 단어들도 90%이상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대들은 뽐뿌(ポンプ) 9.3%를 비롯한 단스(たんす) 8.2%, 시마이(しまい), 스라브(スラブ), 6.2%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말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10대에서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은 ‘쿠세(くせ)’는 노인층에서는 94.1%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세대간의 언어 차는 몇몇 단어에서 아직도 심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10대들이 모르는 일본어가 많았고 일본어를 알고 있어도 우리말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 이는 국어교육의 효과로 볼 수 있으며 발 빠른 정보화 시대, 체계적인 학습, 진보된 문화 등의 영향에서 온 결과이다.

2) 공무원과 농업인의 차

[표13] 일본어 사용차이 비교(30%이상)

순위	일본어	공무원		농업인	
		명	%	명	%
1	우와기	19	43.2	32	97.0
2	구세	8	18.2	21	63.6
3	쇼바	34	77.3	11	33.3
4	스탐푸	35	79.5	12	36.4
5	시아기	25	56.8	33	100
6	구가다	21	47.7	30	90.9
7	곶뿌	3	6.8	16	48.5
8	쿠사리	13	29.5	23	69.7
9	뽀뿌	25	56.8	32	97.0
10	시마이	29	65.9	33	100
11	잣쿠	29	65.9	32	97.0

[표13] 처럼 몇몇 어휘를 통하여 직업간에 상당한 사용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와기(うわぎ)가 농업인은 97.0%, 공무원 43.2%로 심한 사용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쇼바(アブショバ)는 공무원 77.3%, 농업인 33.3%, 스타ンプ(스탐뿌, スタンプ), 공무원 79.5%, 농업인 36.4%, 곶뿌(고뿌, コップ)는 농업인 48.5%, 공무원 6.8%등 사용차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농업인들이 일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농업용어가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주변의 영향에 의해 지금까지 써오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공식적이고 국어순화적 언어를 구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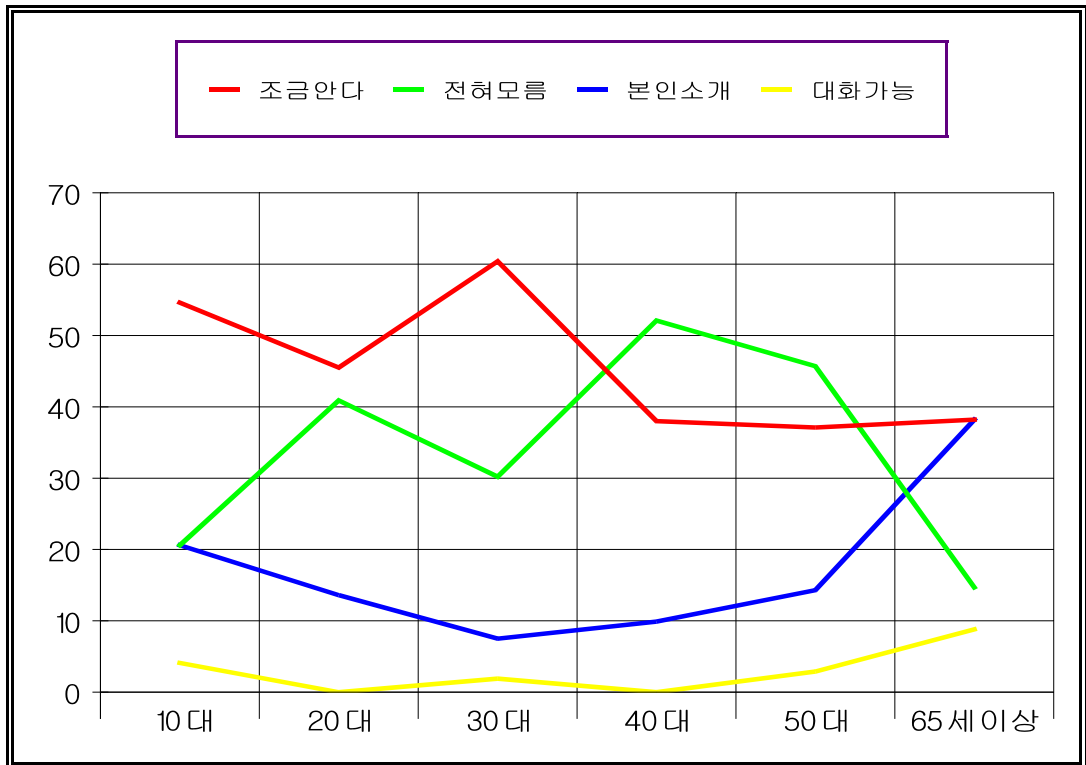
또한 회의나 토론 및 포럼을 비롯하여 상·하위직과의 좌담 등에서도 의식적으로 우리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5. 일상 생활속의 일본어 사용에 관한 물음의 분석

한국인들에게 외국어를 할 줄 아느냐고 누가 묻거나 설문조사를 할 때는 영어를 많이 접하고 배웠지만 거의가 일본어라고 답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일본어 어순이 우리말과 비슷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생활에 접하는 문화가 서양보다 가깝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하여 일상 생활속의 일본어 사용에 관한 물음의 분석을 세대별로 분류 해 보았다.

1) 귀하의 일본어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의 물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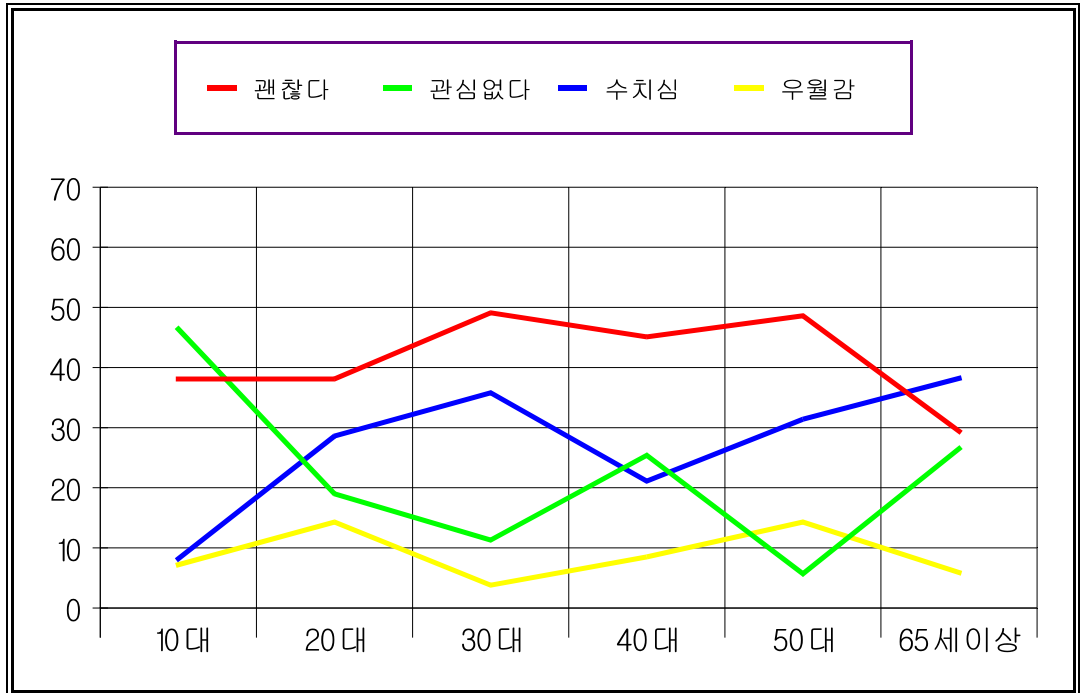
[그림1] 세대별 그래프



- 가. 학교, 학원 등에서 조금 배웠다고 한 세대는 30대가 60.4%로 가장 많았다. 10대 54.6%, 40대 이상은 38.0%이었다.
- 나. 전혀 모른다고 한 세대는 40대 52.1%, 50대 45.7%, 10대와 65세 이상은 조금씩은 알고 있었다
- 다. 본인 소개 정도 가능하다고 한 세대는 65세 이상 38.2%, 현재 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10대 20.6%, 30대 7.5%이었다.
- 라. 일본인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한 세대는 65세 이상 8.8%, 10대 4.1%이었다.

2) 귀하 또는 동료가 일상 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본어를 사용할 때의 느낌은 무엇입니까의 물음

[그림2] 세대별 그래프



가. 우월감을 느낀다고 한 세대 중 20대와 50대 14.3%, 40대 8.5%, 10대 7.2%, 65세 이상이 5.9%, 30대가 제일 낮은 3.8%로서 우월감을 느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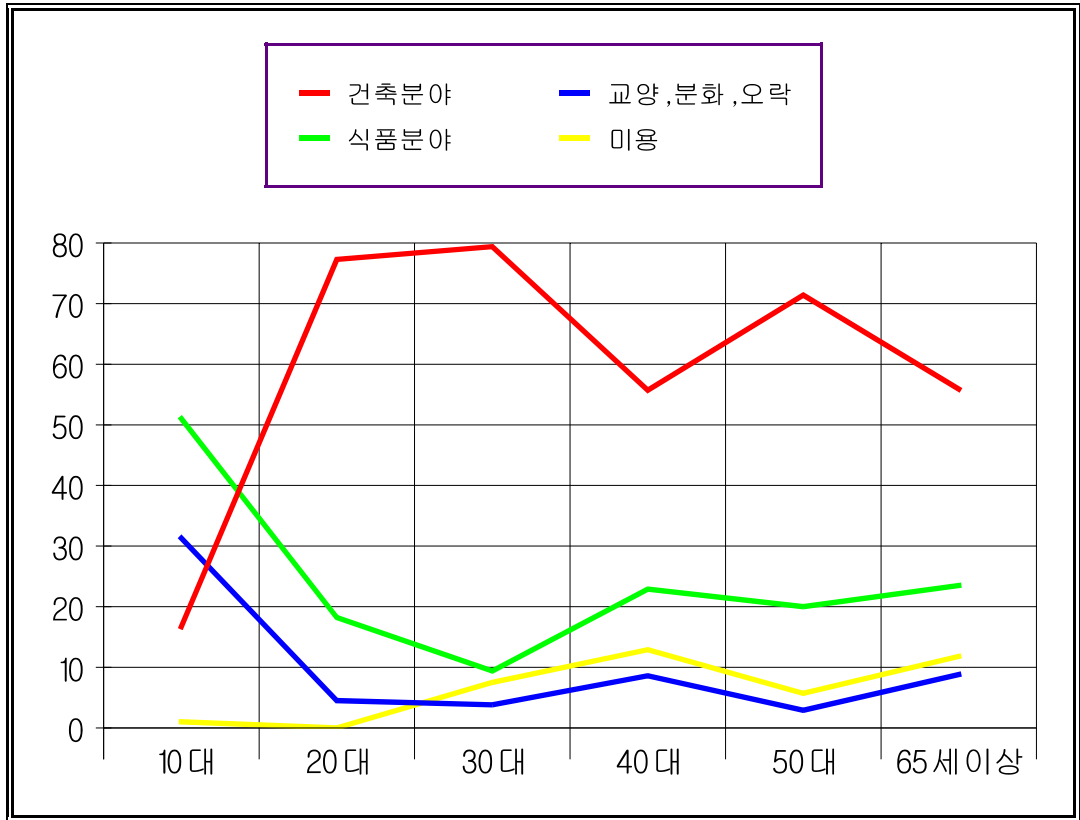
나. 수치심을 느낀다고 한 세대 중 65세 이상이 38.2%로 일상 회화 속에서 많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것은 36년간의 일제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 회화 속에서 일본어를 사용해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응답한 세대중 30대와 50대가 비슷한 49.1%, 40대 45.1%, 10대와 20대 38.1%, 65세 이상이 제일 낮은 29.4%이었다.

라.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한 10대 46.4%, 50대 5.7%로 10대보다는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우리말 속에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 중 어느 분야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

[그림3] 세대별 그래프



가. 건축, 토목, 건설 분야라고 한 세대는 20대와 30대 80%, 10대는 16.7%로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나. 미용분야라고 한 세대는 10대 1명, 20대에서는 한사람도 없었고, 40대 12.9%, 65세 이상은 11.8%순이었다.

다. 식품분야는 10대 51.0%로 다른 분야보다도 높게 형성 되었고, 65세 이상 23.5%, 40대 22.9%, 50대 20.0%, 30대가 제일 낮은 9.4%이었다.

라. 교양, 오락, 문화 분야라고 한 세대는 10대 31.3%, 20대와 50대는 각각 1명씩이었다.

IV 대책방안

지금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일본어를 여러 갈래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사회에 잔재해 있는 일본어의 사용실태를 살펴 보았다. 일제시대에 억지로 배운 일본어가 아직도 기술용어나 일상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은 물론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새로운 일본어 물결이 밀어 닥치고 있는 실정이다.¹⁹⁾

문화관광부는 한·일 양국 정상 공동성명에서 표명한 ‘일본 대중문화 개방 확대’ 원칙의 후속조치로 일본영화, 음반, 게임부문을 2004년 1월 1일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우리의 대책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건축이나 토목·건설분야에서 일본어 사용이 20대와 30대는 80%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10대는 16.7%로 조사되어 현재는 일본어 사용 빈도가 높지만 차츰 빈도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각 관계기관은 물론 언론과 방송기관에서 계속적으로 국어순화의 전개에 참여한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10대들이 65세 이상에 비해 일본어 어휘에 대한 활용빈도가 매우 낮아 체계적인 교육에 의해 국어사용이 착실히 진행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외국의 영화, 음악, 만화등 대중문화의 개방에 대비하여 학계에서는 일본어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말을 발굴하여 제대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전문직 종사원들이 비교적 일본어 어휘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기술 양성 과정에서 우리말 또는 국제기호등의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가야 하겠다.

19) 김길자(1991), 『외래어 사용실태 연구』, 인하대, 석사논문, p.71.

4. 제주도에 일본어가 압도적인 세력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 이유는, 여성들의 활동력이 강하여 일본어로 품팔이 나갔는데 그것도 남자가 아닌 여자들이 사용한 것이라 보며²⁰⁾ 타지방에 비해 심한 사투리 속에 일본어가 많이 들어 있고 일본에 거주하는 친인척이 많아 그들과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일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본다.

신문과 잡지, 라디오나 TV, 대중매체 등에서 계속적으로 일본어를 통제하면서 우리말을 사용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20) 김완진(1957), 「제주도 방언의 일본어어사 차용에 대하여」 『국어 국문학』, 동아출판사, p.114.

V 결 론

사람은 언어를 통해 세계와 관계를 맺는다. 자신을 포함한 이 세계에서 모든 일들을 언어를 통해 이해하고 언어를 통해 표현한다. 언어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죽을 때까지 사용하는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다. 이렇듯 인간은 언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의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한 나라의 언어 속에는 그 나라의 문화 · 사회 · 역사 등이 포함되고, 심지어는 그 나라의 얼까지도 스며있다고 볼 수 있다. 해방된 지 반세기가 지난 아직까지도 일본어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사용실태를 알아 보았다.

10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본어는 남학생이 노가다(どかた)와 오뎡(おでん), 쓰레빠(スリッパ) 순이었고 여학생은 추리닝(トレーニング・ウェア), 우동(うどん), 오뎡(おでん)이었다.

노인은 여자보다 남자노인들이 일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본어를 세대별로 구분했을 때 나이가 들수록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단어도 다양하다. 직종별로는 공무원보다도 농업인이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각 분야별로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주부들은 낱깡(きんかん), 노가다(どかた), 리야카(니야까, リヤカー), 몸빼(もんぺ), 미싱(ミシン), 와사비(わさび), 우동(うどん), 엔코(앵꼬, えんこ), 전문직 종사원은 만땅(滿タン)을 비롯한 밧테리(밧테리, バッテリー), 백미라(백미러, バックミラー), 뽀찌(펜치, ペンチ), 쇼바(아프쇼바, アフショバ), 쉐타(센터, センター), 쓰레빠(스리ッパ), 오뎡(おでん), 히야시(시야시, ひやし), 추리닝(トレーニング・ウェア)이었다.

여성보다 남성이 일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남녀 모두 우리말처럼 사용하는 단어는 미깡(미칸, みかん), 입빠이(잇파이, いっぱい), 만땅(滿タン)이었다.

일본어 사용 빈도에서 시아기(시아게, しあげ), 하마(하바, はば), 하꼬(하코, はこ), 쓰

봉(ズボン), 구가타(구가다, きゅうがた), 스라브(スラブ), 시마이(しまい), 아까징끼(あかチン)는 노인들 사이에 현재 우리말처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무원과 농업인의 차는 우와기(うわぎ)는 농업인들은 대부분이 우와기로 97.0%, 공무원은 그와는 반대로 43.2%였다. 쇼바(アブショバ)는 공무원 7.3%, 농업인 33.3%, 스타푸(스타뿌, スタンプ), 공무원 79.5%, 농업인 36.4%, 곱뿌(고뿌, コップ), 농업인 48.5%, 공무원 6.8%등 몇몇 단어에서 차이가 꽤 있었다.

이처럼 많은 일본어를 무의식적 또는 습관적으로 사용에 따라 우리의 언어를 어지럽게하고 국어발전에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

우리말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언어 정체성의 첫 단계이며 우리말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따르겠지만 어느 특정의 기관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며 그 결과는 우리의 높은 언어문화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언어순화를 하기 위하여 제주도내의 각 분야별, 세대별로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언어현실을 파악함으로써 바른국어로 대처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 문화체육부(문화관광부)(1995, 2002), 일본어투 생활용어 순화집.
박숙희(1996), 반드시 바꿔 써야 할 우리말 속 일본말, 한울림, 은성문화사.
오주영 박종갑(1995) 언어학 개론, 경성대학교출판부.
김완진(1957), 제주도 방언의 일본어어사 차용에 대하여,
국어 국문학회, 동아 출판사
이수열(1999),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말 바로쓰기, (주)현암사
강신항(1991), 현대 국어어휘의 양상, 태학사

<논문>

- 이재원(1997), 국어순화의 한 고찰, 교양교육연구소논문집.
김길자(1991), 외래어 사용실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이경애(1990), 우리말속에 사용되는 일본어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김용성(1995), 순화대상 일본어·일본식 어휘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라주영(2000), 우리말속에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에 대한 고찰.
계명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석사논문.
조영성(1990), 한국어속의 일본제 외래어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이영숙(2001), 우리말 속에 사용되는 일본어에 관한 고찰
(일본대중문화유입이후 고등학생이 사용하는 말을 중심으로)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강대석(1996), 일본어 유입의 역사적 배경과 그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Abstract>

Study on Japanese used in Jejudo

Kim, Jeong-su

Japanes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Lee, chang-ik

Idea, acts as well as formation of value are influenced by language. Language not only represents the communication among people but also shows the tradition.

From old times, Korea and Japan been influenced by Chinese characters having so much things in common, and because of Japanese colonization for 36 years, we still use a lot of japanese for daily life.

The question was given to the total number of 451 containing government employees in Jeju, students, senior citizens, house wives, and compand employees. It is about how to rectify the japanese words used by korean and make it clear of korean language by studying the sixty japanese vocabularies often used in our daily life, thirty seven words of japanese origin, and two compound word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5.

The result shows Japanese is variously used according to gender, region, occupation, and age. It also represents that there are some Japanese words that teenagers do not know at all, vocabularies not used even if people know what they mean. Furthermore, some Korean words have been switched with Japanese. In other words, there are a lot of Japanese vocabularies that have been misunderstood as Korean.

Even if Japanese is not our national language, we use it as it was a part of Korean. It suggests that we were influenced by people who were under Japanese colonization and use it as Korean.

It is the reality that we speak a lot of Japanese vocabularies as Japanese culture has been flooded into the nation, but clarifying the Korean still means rectifying the use of Japanese.

Questions given to teenagers show that use of Japanese words is being diminished and as time goes by, the kinds of Japanese words are also being changed.

Loving and respecting the language should come from our hearts and developing it cannot be attained by certain organization. It needs continued notification and efforts.

부 록

별표 1. 각 분야별 일본어

별표 2. 설문지

별표 3. 국어순화 운동중 일본어를 신조어로 바꾼 어휘

별표 1.

진한 부분은 지금도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다.

1) 건축용어에 남아 있는 일본어

가꾸목(かくもく, 각목), 가꾸바시라(かくばしら, 네모기둥), 가꾸부찌(かくぶち, 문선), 가끼다시(がきだし, 굽어내기), 가나모노(かなもの, 철물), 가나반(かなばん, 쇠숯돌), **가네고테(かねごて, 쇠흠손)**, **가다(かた, 형)**, **가타토리(かたどり, 본뜨기)**, 가라구사(からくさ, 당초무늬), 가베(かべ, 벽), **가이단(かいだん, 계단)**, 가쥬우(かちゅう, 하중), 가히히시(かいいし, 괴임돌), 간나(かんな, 대패), 게이샤(けいしゃ, 경사·물매), **겐노(げんのう, 들을 췌 때 쓰는 큰 망치)**, 겐마(けんば, 현장), 겐짱(げんかん, 현관), **고테(こて, 흠손·납땜인두)**, 고로(ころ, 굴림대), 고방가라(ごばんがら, 바둑무늬), **고시바(こしば, 안전허리띠)**, 고오바이(こうばい, 물매), 고오시(こうし, 격자), 구미다테(くみたて, 조립), **기리(きり, 송곳)**, 기리이시(きりいし, 다듬돌), **나라시(ならし, 고르기)**, **나마코이다(なまこいた, 골함석)**, 네다(ねだ, 장선), 내리(ねり, 비빔·반죽), **내지(ねじ, 나사)**, **내지마와시(ねじまわし, 나사돌리개)**, **노꼬(のこ, 톱)**, 노끼(のき, 처마), 노리(のり, 비탈·해초풀), 노리비끼(のりびき, 시멘트풀칠), **노미(のみ, 꿀)**, 노부찌(のぶち, 반자틀대), 누리까에(ぬりかえ, 재칠), 누리지(ぬりじ, 바름바탕), 니오로시(におろし, 짐부리지), 다가네(たがね, 쇠붙이를 자르거나 멍을 뚫는데 쓰는 기구), **다나(たな, 선반)**, **다테마에(たてまえ, 세우기)**, **다테(たて, 세로)**, 다테메지(たてまえ, 세로줄눈), **다루끼(たるき, 서까래·붙임돌)**, 다마자리(たまじゃり, 구슬자갈), **다이(だい, 대)**, **다이꾸(だいく, 목수)**, **단도리(だんどり, 마련·준비)**, 답바(たっぱ, 높이), 당가(たんか, 들짓), **테꼬(てこ, 지렛대)**, 테나오시(てなおし, 재손질), 테모도(てもと, 조력공·미장이나 목수등), **텐조오(てんじょう, 천장)**, 테즈리(てすり, 난간), **땃깅(てつきん, 철근)**, **땃빵(てっぱん, 철판)**, **도가다(どかた, 막노동꾼)**, **도끼다시(ときだし, 갈아내기)**, 도이(とい, 흠통), **렝가(れんが, 벽돌)**, **렝가고테(れんがごて, 벽돌흠손)**, 마가리(まがり, 꼬부림), **마꾸라(まくら, 받침목)**, **마도(まど, 창)**, 마도와꾸(まどわく, 창틀), **마이가리(まえがり, 가불)**, 마즈끼리(まじきり, 간막이벽), 메지(めじ, 줄눈), 메가네이시(めがねいし, 구멍돌), **메지(めじ, 줄눈)**, 메지보오(めじぼう, 줄눈대), **멕끼(めっき, 도금)**, 모꾸네지(もくねじ, 나사못), 모꾸렝가(もくれんが, 나무벽돌), 모야(もや, 중모리), 무라나오시(むらなおし, 고름질), 미즈모리(みずもり, 수평보기), **반쎅(ばんせん, 굽은철사)**, **사짱(さかん, 미장공)**, 사까메(さかめ, 잇걸), 사꾸리(しゃくり, 흙파기), 사비도메(さびどめ, 녹막이), 사시가네(さしがね, 곡천), 세끼산(せきさん, 적산), 세끼자이(せきざい, 석재), **섹가이(せっかい, 석회)**, **센방(せんばん, 선반)**, 쇼에이다(そえいた, 덧판), 쇼오지(しょうじ, 장지), 스나(すな, 모래), 스리가라스(すりガラス, 간유리·뽀얀유리), **스미(すみ, 떡긋기)**, 쓰미(つみ, 쌓기), 스미바시라(すみばらし, 모서리기둥), 쓰야게시누리(つやけしぬり, 무광칠), 쓰야다시(つやだし, 광내기), 쓰지스테바(つちすてば, 사

토장), 승보(すんぼう, 치수), 시끼(しきい, 문지방), 시끼나라시(しきならし, 피 고르기), 시끼리가베(しきりかべ, 간막이 벽), 시다누리(したぬり, 초벌 칠), 시다바(したば, 밀면), 시다지(したじ, 바탕), 시로(しろ, 백색), **시마이(しまい, 마감), 시아게(しあげ, 마무리), 시메(しめ, 조이기, 조임)**, 심보(しんぼう, 축), 싯꾸이(しっくい, 회반죽), 아까랭가(あかれんか, 붉은벽돌), 아까보(あかぼう, 짐꾼), 아게사게마도(あげさげまど, 오르내리 창), 아나방(あなばん, 구멍철판), **아다리(あたり, 맞닿기)**, 아데(あて, 덧 댐), 아도가다즈께(あとかたづけ, 끝정리), 아라가베(あらかべ, 초벽), 아라간나(あらかんな, 거친 대패), 아라이다시(あらいだし, 씻어내기), 아리가다(ありがた, 규준 틀), 아시바(あしば, 비계발판), 아야(あや, 무늬), **아오샤싱(あおじゃしん, 청사진)**, 야네(やね, 지붕), 야리꾸리(やりくり, 번동), **야마모리(やまもり, 고봉쌓기)**, 야마스나(やますな, 산모래), 야마자리(야마자리, 산자갈), **야스리(やすり, 줄)**, 오비깡(おびきん, 띠철근), **오비노꼬(おびのこ, 줄톱)**, **오야지(おやじ, 주인), 와꾸(わく, 틀, 울거미)**, 와리구리이시(わりぐりいし, 잡석), 요꼬(よこ, 가로), 요꼬메지(よこめじ, 가로 줄눈), 우마(うま, 발돋움대), 우와누리(うわぬり, 정벌칠, 정벌바름), 우찌누리(うちぬり, 초벌바르기), 이다(いた, 널), 이다메(いため, 널 걸, 무늬걸), 이도노꾸(いとこのこ, 실톱), 잇승(いっすん, 한 치), 이시와리(いしわり, 돌나누기), 이시즈미(いしづみ, 돌쌓기), 자리(じゃり, 자갈), **자바라(じゃばら, 들림띠)**, 죠오(じょう, 자물쇠), 쓰기데(つぎて, 이음새), 지나라시(じならし, 땅고르기), 지도리(じどり, 지면구획), 지방(じばん, 지반), 진조오세끼(じんぞうせき, 인조석), 쿠사비(くさび, 쐐기·사물과 사물을 간단히 결합 시키는 것), 하가네(はがね, 강·강철), 하께누리(はけぬり, 솔칠), **하꼬(はこ, 상자)**, 히라끼(ひらき, 여닫이문), **하바(はば, 폭), 하시라(はしら, 기둥)**, 하시꼬(はしご, 사닥다리), 하시라(はしら, 기둥), 한다(はんだ, 땀납), 한다쓰께(はんだづけ, 납땀), **한바(はんば, 밥집, 가쳐소)**, 호리가다(ほりがた, 티파기, 휴파기), 호조미소(ほそみそ, 가는 흙), 혼바시라(ほんばしら, 본 기둥), 후끼쓰께(ふきつけ, 뿔기), **후끼칠(ふき, 뿔칠)**, 헤베이(へいべい, 평방미터), 후미즈라(ふみづら, 디딤바닥, 디딤판), **히끼다시(ひきだし, 서랍)**, 히끼도(ひきど, 의미달이), 히끼와께(ひきわけ, 쌍미달이), 히사시(ひさし, 채양), 히라시(ひらき, 여닫이)

2) 음식에 관계되는 일본어

가따꾸리(かたくり, 녹말), 가마보꼬(かまぼこ, 생선묵), **간쓰메(かんづめ, 통조림)**, 고노와따(このわた, 해삼 창자(젓)), 나가시(ながし, 개수대), **네기(ねぎ, 파)**, 노리마끼(のりまき, 김초밥), 니기리스시(にぎりすし, 생선초밥), 닝징(にんじん, 당근), 다께마시(たけばし, 대젓가락), **다꾸양(たくあん, 단무지), 다대기(たたき, 다진양념)**, 다마꼬뚝부리(たまこどんぶり, 계단덮밥), **다마네기(たまねぎ, 양파), 다시(だし, 맛국물)**, 다이콩오로시(だいこんおろし, 무즙), **데바보쵸(でばぼうちょう, 큰식칼)**, **뎀뿌라(てんぷら, 튀김)**, 돈가스(とんかつ, 돼지고기 커트렛), **뚝부리(どんぶり, 덮밥)**, 마에사라(まえさら, 나뭇잎시), **모리소바(もりそば, 메밀국수), 모찌(もち, 떡)**, 사까스께(さかずき, 술

잔), 사라(さら, 접시), 사시미(さしみ, 생선회), 샤쿠(しゃく, 긴국자), 센베(せんべい, 전병), 스키야끼(すきやき, 전골), 스프메(するめ, 말린오징어), 쓰키다시(つきだし, 무료안주), 시다(した, 조수), 시마이(しまい, 마감), 시보리(しぼり, 물수건), 시아게(しあげ, 끝손질), 시야시(ひやし, 차게함), 시오야끼(しおやき, 소금구이), 아까다시(あかだし, 된장국), 아나고(あなご, 붕장어·바다장어), 아라이(あらい, 설거지), 아부라게(あぶらあげ, 유부), 앙꼬(あんこ, 팥속), 앙꼬모찌(あんこもち, 찹쌀떡), 앙꼬빵(あんこパン, 팥빵), 야끼(やき, 구이), 예비후라이(えびフライ, 빵가루 묻힌 튀김(새우)), 오고시(おこし, 밥풀과자), 오텍(おでん, 꼬치안주), 오봉(おぼん, 쟁반), 오차(おちゃ, 차), 와르바시(わりばし, 나무젓가락), 와사비(わさび, 고추냉이), 요캉(ようかん, 양갱), 요지(ようじ, 이쑤시개), 우나기(うなぎ, 장어), 우동(うどん, 가락국수), 우메보시(うめぼし, 매실절이), 이다바(いたば, 조리사, 숙수), 자왕무시(ちゃんむし, 계란찜), 젠자이(せんざい, 단팔죽), 조바(ちょうば, 계산대), 후꾸로(ふくろ, 주머니)

3) 수산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일본어

가고(かご, 바구니), 고나카이(こなかがい, 소매인), 고다마(こだま, 작은알, 작은고기), 고바꼬(こばこ, 작은상자), 고에다테(こえだて, 경매를 알리는 앞 소리), 나카마시세(なかも(시세), 도매금), 나라시(ならし, 고추농기), 니우께(にうけ, 짐반이), 텃끼리(てっきり, 적중값), 모구리(もぐり, 잠수부), 모야(もや, 배 매는 밧줄), 미쓰아게(みずあげ, 모두팔이, 판매고), 미즈기(みづぎ, 어립값), 보오사시(ぼうさし, 안내사), 사시(さし, 손짐, 중매인에게 가격표시로 살짝 찌르는 것), 세리(せり, 경매), 세리꼬(せりこ, 경매사), 세리바(せりば, 경매장), 세리사게(아게)(せりさげ(あげ), 가격 내려 부르기(올려부르기)), 소오도리(そうどり, 전체사기), 쓰끼아이(つきあい, 몫 나누기), 아도도리(あとどり, 떨이), 야마모리(やまもり, 고봉), 오바꼬(おおぼこ, 큰상자), 오오데(おおて, 큰장수), 우지가끼(うちかぎ, 갈고리), 인지기(いんちき, 속임수), 잇본세리(いっほんせり, 단번치기(낙찰이 한번에 끝남)), 하코야(はこや, 상자장수), 하마쵸(はまちょう, 받음장(어획물을 접수·속기하는 장부)), 한빠(はんぱ, 우수리, 덜들이), 후다(ふだ, 쪽지), 후다도메(ふだとめ, 거래중지)

4) 의복 바느질에 관계되는 일본어

가다(かた, 어깨), 가다마이(かたまえ, 양복), 가라(がら, 무늬), 간지(かんち, 옷의 완성을 판별함), 게싱(げしん, 옷속에 넣는 것(뿔뿔하게)), 고팡가라(ごばんがら, 바둑무늬), 고순(ごすん, 5개의 눈금), 고시(こし, 허리), 고시시보리(こししぼり, 허리죄기), 고시우라(こしうら, 허리안), 기레빠시(きれはし,きれっぱし, 조각천), 기리미(きりめ,きれめ, 자른면, 단면), 기지(きじ, 옷감), 나오시(なおい, 고침질), 나와아미(なわあみ, 꼬아뜨기), 내지끼(ねじき,ねおい, 요 밑에 깔고 주름잡음), 다테(たて, 세로선), 단스(たんす, 서랍장), 도꾸리(셔츠)(とくり,とっくり, 목긴(셔츠)), 도꾸이(とく

이, 단골손님), 료마에(りょうまえ, 겹자락(양복)), 마꾸라(지)(まくら(じ), 어깨에 넣는 덧침), 마다시다(またした, 바지 안솔기), 마드메(まどめ, 밀단·단추등을 다는 것), 몸베(もんべ, 여성 작업용바지), 무라(むら, 얼룩), 미싱(みしん, 재봉틀), 사가리가다(さがりかた, 처진어깨), 사르마다(さるまだ, 잠방이), 세다께(せたけ, 등길이), 세비로(せびろ, 신사복), 소데(そで, 소매), 소데구찌(そでぐち, 소매부리), 소데꾸리(そでくり, 소매선), 소데나시(そでなし, 소매없는 옷), 쓰메에리(つめえり, 선깃), 시다(した, 보조원), 시다마이(したまえ, 안자락, 단추다는 곳), 시다몽(したもん,したもの, 바지만드는사람), 시로시(しるし, 송곳표지), 시마(しま, 줄무늬), 시아기(しあげ, 다림질하는 것), 신가라(しんがら, 새로운 무늬), 십뿌(しっぷ, 다림질할 때 대고 다리는 천), 싱(しん, 속·심), 아가리가다(あがりかた, 솟은어깨), 야마소데(やまそで, 윗소매), 에리구리(えりくり, 깃들레, 목선둘레), 에리나시(えりなし, 깃없음), 와께(わけ, 깃과깃사이), 와끼(わき, 옆솔기), 와따(わた, 숨), 우라(うら, 안감), 우와마이(うわまえ, 겹섬, 단추구멍이 있는 곳), 유도리(ゆどり, 여유), 이지부(いちぶ, 한눈금), 잇순(いっすん, 10개의 눈금), 하도메(はとめ, 단추구멍을 뚫는 쇠고리), 하리핀(はりピン, 꽃이바늘), 한소데(はんそで, 반소매), 호시(ほし, 겉과 속을 연결하는 바느질), 후다(ふた, 주머니 뚜껑)

5) 인쇄에 관한 일본어

가가리(かがり, 실매기, 위음), 가께표(かけひょう, 가위표), 가다마와리(かたまわり, 귀돌림), 가다메(かため, 등굳힘), 가다오시(かたおし, 형압), 가리방(がりばん, 등사판), 가리즈리(かりずり, 애벌찍기), 가와스끼(かわすき, 가죽칼), 게다(げた, 복자), 게라구미(ゲラぐみ, 애벌찍기), 게라즈리(ゲラずり, 교정쇄), 게쇼우다찌(げしょうだち, 다듬 재단), 겐또아와세(けんとうあわせ, 가늌잡이), 겐슨(げんすん, 원치수), 고구찌(こぐち, 앞치기), 고다찌(こだち, 토막재단), 구라토지(くらとじ, 가운데 매기), 구루무(くるむ, 책 싸기), 구찌노리(くちのり, 앞폴넣기), 구치에(くちえ, 앞면그림), 기리스테(きりすて, 잘라냄), 기리오시(きりおし, 깎아밀기), 나까미(なかも, 속장), 나까토지(なかとじ, 가운데 매기), 나오시(なおし, 고침), 노리사시(のりさし, 풀 넣기), 다이(だい, 갈판), 다테(たて, 세로인쇄), 테사시(てさし, 수동), 텐찌(てんち, 아래 위 치기), 도메(とめ, 잠금, 끈), 도비라(とびら, 속 제목), 도치에(とじめ, 매는 쪽), 돈뎡(とんでん, 둘러치기), 돈보(とんぼ, 기준점, 가는 표), 마꾸라(まくら, 쪽대), 마이요시(まいよし, 날장), 무라또리(むらとり, 얼룩잡기), 무센도지(むせんとし, 무선철, 풀매기), 미다시(みだし, 찾음표), 베타(べた, 바탕), 보르다찌(ボールたち, 합지재단), 사시가에(さしかえ, 바뀔웃음), 사시꼬미(さしこみ, 사이넣기), 삼방다지(さんめんたち, 삼면재단), 세나까(せなか, 등), 세바리(せばり, 등지), 세마끼(せまき, 등싸기), 세토지(せとし, 가운데 매기), 소로에(そろえ, 추림), 소오짱(ぞうがん, 봉박이), 슌뿌(すんぼう, 찢수), 시끼리(しきり, 보충감), 시다소로에(したそろえ, 밀추림), 시로뉴끼(しろぬき, 희게 인쇄함), 시아게(しあげ, 도련, 마무리), 시아게다찌(しあげたち, 다듬재단), 시오리(しおり, 갈피끈), 시와(しわ, 주름), 아다마소로

에(あたまそろえ, 윗추림), 아라쓰나기(あらつなぎ, 대충편집), 아미뜬다(やみ(뜬다), 어둡게 인쇄함), 아쓰미(あつみ, 책두께), 야키쓰게(やきつけ, 빗쪼기), 야키와꾸(やきわく, 빗쪼틀), 야레(やれ, 파), 야마(やま, 둥굴림), 예노그(えのぐ, 그림물감), 오다지(おおだち, 마름재단), 오리가에시(おりかえし, 접기), 오리꼬미(おりこみ, 접간지), 오리쪄우(おりちょう, 접장), 오리쓰게(おりづけ, 판권), 오비지(おびじ, 띠지), 오시(おし, 자국), 와꾸(わく, 쇠틀), 와리쓰게(わりつけ, 원고 배정), 우라(うら, 뒷접지), 우라가끼(うらがき, 배서), 우라누리(うらぬり, 덧칠), 이따(いた, 판), 이또도지(いとどじ, 실매기), 죠아이(ちょうあい, 뽑새, 질맞춤, 낙장의 유무 검사), 초가다메((초)かため, (초)등 굳힘), 하나기래(はなぎれ, 꽃 천(띠)), 하리가내토지(はりがねとじ, 철사매기), 헤라(へら, 접지 밀대), 혼가끼(ほんがけ, 본걸이), 후세지(ふせじ, 복자), 히라(ひら, 면)

6) 미용·이발분야에서 사용되는 일본어

가다가끼(かたかけ, 어깨 두르기), 가미소리(かみそり, 면도칼), 고데아이롱(こてアイロン, 머리인두), 다테마끼(たてまき, 세로말이), 다마찌라시(たまちらし, 구슬머리), 샴프다이(シャンプーだい, 세발대), 스포츠가리(スポーツがり, 스포츠형머리), 쓰메끼리(つめきり, 손톱깎기), 시아기(しあげ, 끝손질), 십푸(しっふ, 꺾질), 야스리(やすり, 줄), 오니핀(おにピン, 슬래핀), 우지마끼(うちまき, 안말이), 우지찌라시(うちちらし, 안쪽으로 퍼머함), 토메핀(とめピン, 묶음핀, 왕핀), 후까시(ふかし, 부풀머리)

7) 영화계에서 쓰는 일본어

구다리(くだり, 대목, 마디), 기도(きど, 수표원), 기즈(きず, 상처, 흠), 깃가끼(きっかけ, 좋은 기회), 나메(なめ, 스쳐찍기), 니쥬(にじゅう, 이중, 겹), 데모찌(てもち, 들고찍기), 덴짱(てんかん, 세트 바꾸기), 도리나오시(とりなおし, 다시찍기), 마끼까에(まきかえ, 되감기), 마끼도리(まきどり, 필름감개), 만땅꾸(まんたんく, 초만원), 바라시(ばらし, 세트 거두기), 뽕뽕끼(ピンぼけ, 흐린 초점), 삼마이(さんまいめ, 희극배우, 삼류), 시보리(しぼり, 조리개), 썬와리(シーンわり, 장면나누기), 아시(あし, 삼각대), 좡(ちゃん, 끝, 마지막), 찌라시(ちらし, 전단, 광고지), 콤마도리(コンマどり, 낱장찍기)

8) 당구등 놀이에서 쓰는 일본어

가라꾸(からくう, 콧선 돌리기-당구), 가에리(かえり, 돌아오기-당구), 가꾸(きゃく, 반대치기-당구), 케바리(けばり, 털뉘시-뉘시), 겐포우(けんとう, 어림, 짐작-당구), 겐베이(げんべい, 편 나누기-당구), 겐세이(けんせい, 견제-당구), 고도리(ごどり, 화투놀이), 구사(くさ, 초단-화투), 구찌바(ぐちよきば, 손으로 하는 놀이), 기리(きり, 끊기-화투), 기리가시(きりかえし, 가로치기-당구), 기리비끼(きりびき, 깎아뜰기-당구), 기리오시(きりおし, 깎아뜰기-당구), 긴다마(きんだま, 쉬운공-당구), 나가리(ながれ, 무효-화투), 나메(なめ, 얇게치기-당구), 내지마오시(ねじまわし, 돌려치기-당구), 다마(たま, 구슬-당구), 다마고(たまご, 부딪치기-당구), 다마사와리(たまさわ리, 공건드리기-당구), 대아이(दैあい, 마주치기), 덴찌(てんち, 손바닥을 위로 아래로 하면서 편 가르기), 마끼(まき, 말이-당구), 마오시(まわし, 돌리기-당구), 마시(まし, 다맞기-당구), 사까다찌(さかだち, 물구나무서기), 사끼다마(さきたま, 앞공-당구), 쓰리기리(つきぎり, 단번치기-당구), 사시(さし, 개인게임-당구), 쇼부(しょうぶ, 승부, 담판), 소오단(そうだん, 의논-화투), 아까도리(あかどり, 빨간공치기-당구), 아다리(あたり, 단수-바둑), 오시(おし, 밀기-당구), 오오마오시(おおまわし, 크게 돌리기-당구), 요꼬비끼(よこびき, 옆뜰기-당구), 요세다마(よせたま, 모으기-당구), 용꼬(よんこう, 사광-화투), 우라마오시(うらまわし, 공뒤편 돌리기-당구), 장겜뽀(じゃんけんぽん, 가위 바위 보), 죠꾸비끼(ちよくびき, 똑바로뜰기-당구), 하꼬마오시(はこまわし, 귀돌리기), 호모찌(ほもち, 집게 마디, 끝 앞대-뉘시), 히끼(ひき, 뜰기-당구), 히네(ひね, 비틀기-당구), 히가께(ひっかけ, 뜰기-당구)

9) 자동차나 교통에 관계되는 일본어

나가시(ながし, 나들이차), 나라시(ならし, 길들이기), 데코보코(でこぼこ, 울퉁불퉁함), 마끼자꾸(まきじゃく, 감는 자), 모도시(もどし, 되돌리기), 바테리에끼(バッテリー-えき, 축전지용액), 보로(ぼろ, 걸레), 시다마와리(したまわり, 하체부), 시다카바(したカバ, 기름받이), 엔꼬(えんこ, 기름이 떨어짐), 오리자꾸(おりじゃく, 접자), 오오수리(おおしゅうり, 큰수리), 오이꼬시(おいこし, 앞지르기), 오이르깡(オイルかん, 기름통), 준세이(じゅんせい, 신품, 순제품), 카라마와리(からまわし, 헛돌기), 켄마(けんま, 연마), 키리카에(きりかえ, 바꾸기, 대체), 판킹(ばんきん, 판금), 후따(ふた, 덮개), 하도메(はどめ, 뿔)

별표 2.

설문취지는 제주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본어 사용실태와 빈도, 인식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후 본고를 작성하려고 했으나 인식까지는 범위가 광범위하여 사용실태와 빈도에 한정을 두고 논문을 작성 하였다.

설 문 지

이 설문내용은 문화체육부가 발행한 일본어투 생활 용어 순화집에 나온 어휘 중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가장 밀접하게 사용되고 있는 어휘 99개를 선택해 제주도 내에서 거주하는 공무원, 주부, 학생, 전문직 종사원, 노인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일본어 잔재가 우리 일상 생활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남아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기초 자료조사입니다

조사된 내용은 통계처리 되며 학문적인 목적에만 사용되고 다른 목적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 별 : 남() 여()

나 이 : ()세

고 향 : 제 주 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 이외는 거주지로 표시바랍니다

일상생활속에 일본어

※ 작성요령 : 자신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어휘에 V표시만 하시면 됩니다

두 개의 어휘를 모두 사용시는 ①②번 모두 V를, 한 개의 어휘만 알고 한 개의 어휘는 모를때는 ①②번 중 한 개에 V를, 알지만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③④중에도 한 개를 V 표시 하면 됩니다

I 순일본어

1 ① 가짜, 무늬	② 가라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2 ① 계단	② 가이단(단)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3 ① 각목	② 가쿠목(가꾸목)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4 ① 통조림	② 간스(즈)메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5 ① 오르막	② 고바이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6 ① 화로, 풍로	② 곤로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7 ① 구형	② 구가다(타)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8 ① 수레, 달구지	② 구루마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9 ① 편잔, 면박	② 쿠(구)사리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10① 버릇, 습관	② 쿠세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11① 교체, 바꾸기	② 기리까이(에)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12① 흙(집)	② 기즈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13① 금굴, 동굴	② 깡깡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14① 나사	② 네지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15① 막노동자	② 노가다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16① 구슬,알,전구	② 다마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17① 양파	② 다마네기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18① (맛)국물	② 다시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19① 받침대	② 다이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20① 단무지	② 다꾸(쿠)안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21① 채비, 단속	② 단도리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22① 옷장, 장롱	② 단스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23① 생떼	② 땡강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24① 마른오징어	② 스루메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25① 초밥	② 스시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26① 떡	② 모치(모찌)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27① 되돌림	② 모도시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28① 일바지, 왜바지	② 몸빠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29① 막무가내	② 무뎛뎛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30① 감귤, 귤, 밀감	② 미깡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31① 분배	② 분빠이(분과이)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32① 접시	② 사라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33① 생선회	② 사시미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34① 벚꽃, 사기꾼	② 사쿠(꾸)라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35① 메밀국수	② 모리소바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36① 마감, 끝남	② 시마이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37① 마무리, 끝손질	② 시아기(계)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38① 소매치기	② 쓰리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39① 손톱깎기	② 쓰메끼(키)리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40① 봉장어	② 아나고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41① 새것	② 아다(타)라시이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42① 줄	② 야스리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43① 군만두	② 야키(끼)만두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44① 떨어짐	② 엔코(엥꼬)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45① 꼬치, 어묵	② 오텡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46① 두목, 책임자	② 오야지(붕)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47① 나무젓가락	② 와리바시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48① 고추냉이	② 와사비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49① 이쭉시개	② 요지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50① 가락국수	② 우동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51 ① 상의,웃도리	② 우와기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52 ① 여유	② 유도(토)리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53 ① 잇파이(입빠이)	② 가득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54 ① 주름상자	② 자바라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55 ① 선전지	② 찌(지)라시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56 ① 젓가락	② 하시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57 ① 상자	② 하꼬(코)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58 ① 폭,나(너)비	② 하바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59 ① 엉터리	② 후로꾸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60 ① 차게함	② 히야시(시아시)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II 일본식 외래어

61 ① 유리	② 가라스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62 ① 일람표	② 가타(다)로쿠(구)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63 ① 잔, 컵	② 고뿌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64 ① 잠옷	② 파(바)자마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65 ① 튀김	② 텐(템)푸라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66 ① 변압기	② 도란스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67 ① 곱, 갑절	② 따불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68 ① 손수레	② 리(니)야카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69 ① 목도리,소음기	② 마후라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70 ① 재봉틀	② 미싱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71 ① 균형	② 바란스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72 ① 양동이	② 바케(계)스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73 ① 배터리,축전지	② 밧테(떼)리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74 ① 뒷거울	② 백미라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75 ① 단추, 버튼	② 보단(당)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76 ① 종이상자 골판지상자	② (담)보루박스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77 ① 후진, 뒤로	② 빠꾸오라이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78 ① 팬티	② 뽀스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79 ① 핑크	② 빵쿠(꾸)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80 ① 집게, 펜치	② 뽀찌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81 ① 페인트	② 빵끼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82 ① 펄프	② 뽀뽀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83 ① 셀러드	② 사라다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84 ① 완충기	② 쇼바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85 ① 바닥판,평판	② 스라브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86 ①잉크관,양벼루	② 스타뽀(스타푸)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87 ①중앙,중심,센터	② 쉐타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88 ① 실내화	② 쓰레빠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89 ① 양복바지	② 쓰봉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90 ① 머큐롬,소독약	② 아까징끼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91 ① 진액	② 엑기스(에키스)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92 ① 외투,겉옷	② 오바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93 ① 지퍼	② 잣쿠(자꾸)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94 ① 물뿌리개	② 조로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95 ① 안전모	② 화이버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96 ① 튀김	② 후라이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97 ① 운동복	② 추리닝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III 합성어

98 ① 노래방	② 가라오케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99 ① (기름이)가득	② 만땅	③①을 알지만 사용않음	④②을 알지만 사용않음

IV 일상생활속에 일본어 사용에 관한 물음

1. 귀하의 일본어 실력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일본인과 대화가 가능하다 ② 자기소개 정도 가능하다
- ③ 학교·학원등에서 조금 배웠다 ④ 전혀 모른다

2. 귀하가 또는 동료가 일상회화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본어를 사용할 때 느낀점은?

- ① 우월감을 느낀다 ② 수치심을 느낀다
- ③ 회회속에서 단어를 사용해도 아무렇지도 않다 ④ 전혀 관심없다

3. 귀하가 생각하기에 우리말속에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중 어느분야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건축, 토목, 건설분야 ② 미용분야
- ③ 식품분야 ④ 교양, 오락, 문화분야

별표 3.

80년까지 계속된 국어순화 운동중 일본어를 신조어로 바꾼 어휘이다.

일본어	→	신조어
우동	→	밀국수
벤또(辯當)	→	도시락
우찌와께(內譯)	→	속가름
우라가끼(裏書)	→	뒀다짐, 뒀도장, 뒀보증
에노구(繪具)	→	채색감, 채료
엔소꾸(遠足)	→	먼거님, 소풍
오텡	→	꼬치전골
가이스(碍子)	→	뚱딴지, 막이
가리스리(假刷)	→	초벌찍음
간즈메	→	통조림
간뵙(看板)	→	보람판, 보람패
기꾸망(菊判)	→	57판
사까다찌(逆立)	→	곤두서기, 물구나무서기
가리누이(假縫)	→	시침바느질
곤다테(獻立)	→	차림, 음식차림
고꾸방(黑板) 후끼(拭)	→	칠판지우개
템뿌라	→	튀김
스시	→	초밥
소바	→	(모밀)국수
스리	→	소매치기

우리말에는 없고 일본어에만 있어서 새로 만들어 쓴 어휘 가운데 ‘통조림’ ‘튀김’ ‘초밥’ ‘도시락’ ‘모밀국수’ ‘지우개’ ‘소매치기’ 등 제자리에 잡은 것도 있으나 ‘속가름’ ‘뒀도장’ ‘먼거님’ ‘보람판’ 등은 널리 쓰이지 않는다.

감사의 글

부족한 저에게 본 논문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분들과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열정을 다하여 본 논문을 지도해 주신 이창익 교수님을 비롯해 논문심사를 맡아 지도해 주신 김승한 교수님과 김난희 교수님, 그리고 김성봉 교수님, 진은숙 교수님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방송통신대학의 이경수 교수님, 제주한라대학의 정예실 교수님, 고용진 교수님, 김형철 교수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북제주군농업기술센터 김영종 소장님과 현용주, 김우일 과장님을 비롯한 동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연구개발팀인 손명수 계장님, 홍성철, 김영배, 김용찬 선생님께 고마움을 전하며 학문적으로 부족한 저에게 대학시절부터 대학원 석사과정까지 10년 가까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문영인 박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한마디 불평없이 뒷바라지 하면서 참아준 아내 김옥자와 사랑하는 성현, 재현, 그리고 부모님과 먼저 세상을 떠난 형님과 다른 형제자매들에게도 이 논문을 바칩니다. 또한 마다하지 않고 잔심부름을 해준 조카 윤정이에게도 한마디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본 논문이 제주도 국어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